

# 佐賀博物館所藏의 高麗寫經

## 八冊本法華經에 關한 考察

權 熹 耕

日本の九州佐賀縣立博物館에는 高麗時代의 作品인 紺紙金泥의 妙法蓮華經七冊本(1)과 더불어 紺紙銀泥의 「妙法蓮華經」八冊本한질이 보관, 그 일부가 전시되고 있다.

이 法華經寫經들은 佐賀의 城主였던 鍋島家의 所有品으로 佐賀博物館에 寄託되고 있으며 高麗寫經研究에는 없지 못할 貴重한 資料들이다.

특히 이 八冊本의 「妙法蓮華經」은 缺本없이 全질이 갖추어져 있다는 點과 第一卷과 第八卷을 除外한 나머지 六卷의 卷首書로 全部寶塔이 그려져 있다는 點에서 상당히 關心을 갖게 하는 作品이다.

일반적으로 法華經의 變相의 特徵은 대개 오른쪽에 釋迦眷屬圖가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經의 內容이 그려져 있는데(2)이 寫經은 寶塔을 重要한 「모티브」로 삼고 있어 高麗寫經의 卷首書에 있어서 또 하나의 例外的인 것으로서 注目할만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 寫經의 八卷의 奧書에는 年記없이 다만 壬申이란 干支만이 쓰여져 있어 순간적으로 時代區分에 혼란을 갖게 한 作品이기도 하다.

### 一、現狀

먼저 이 寫經의 現狀을 紹介하면 一部八冊으로써 缺本없는 完品, 紺

紙銀泥의 折本型寫經으로서 各卷의 卷首書는 金泥로 그려져 있다.

法量은 세로 三一、六「센치」가로 一〇、九「센치」。表紙(圖1)는 二重의 金界線속에 金、銀의 寶相華文이 그려져 있고 表題는 金泥로써 쓰여져 있으며 內題는 銀泥로 쓰여지고 있다. 法華經의 本文은(圖2) 天地가 金泥線으로 구획되어져 있으며 그 길이가 一九、四「센치」이다. 行과 行사이에는 銀泥線으로 그려져 있고 界幅은 一、八「센치」이다. 한 「페이지」에 六行씩 쓰여져 있으며 一行에 一七字씩 쓰여 있다.

各卷의 裏面에는 未書로 紙數를 表示하고 있다.

第一卷은 十九紙(3)에 百二「페이지」。第二卷은 二〇紙에 五三「페이지」로 第二紙의 裏面에는 金泥書의 「玄哲」이라는 記名이 보인다. 第三卷은 十九紙에 四九「페이지」이며 第四卷은 十六紙 四五「페이지」 第五卷은 十七紙에 四六「페이지」이며 第六卷은 十八紙에 五〇「페이지」 第七卷은 十五紙에 四二「페이지」、第八卷은 十五紙에 三八「페이지」이다. 이 寫經도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卷首書가 다른 高麗法華經의 卷首書와는 달리 寶塔이 六卷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正確한 年記가 없어 時代區分에 있어 이것이 과연 高麗의 寫經인지 어떤지 하는 點에서 상당히 망설이게 하는 寫經이었다.

그러나 奧書의 人名에서 그 確實한 年代를 헤아릴 수 있었다.

먼저 이 寫經이 高麗의 寫經이란 點을 確實히 해두기 위해 그 奧書부 터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 一、奧書(圖3)

皇帝萬年

國王宮主

福壽無疆國泰民安法界含靈同生淨土盡

未來際同作佛事無一可度然後乃已冀見聞

是爾時華德菩薩白佛言世尊是妙音菩薩  
 深種善根世尊是善薩住何三昧而能如  
 在所變現度脫眾生佛告華德菩薩善男子  
 其三昧名現一切色身妙音菩薩住是三昧  
 中能如是饒益無量眾生說妙音菩薩品  
 特與妙音菩薩俱來者八萬四千人皆得現  
 一切色身三昧此娑婆世界無量菩薩亦得  
 是三昧及陀羅尼爾時妙音菩薩摩訶薩供  
 養釋迦牟尼佛及多寶佛塔已還歸本土所  
 經諸國六種震動而寶蓮華作百千萬億種  
 種種伎樂既到本國與八萬四千菩薩圍繞至  
 淨華宿王智佛所白佛言世尊我到娑婆世  
 界饒益眾生見釋迦牟尼佛及見多寶佛塔  
 禮拜供養又見文殊師利法王子菩薩及見  
 樂王菩薩得勤精進力喜薩勇施菩薩等亦  
 令是八萬四千菩薩得現一切色身三昧說  
 是妙音菩薩來住品時四萬二千天子得無  
 生法忍華德菩薩得法華三昧  
 妙法蓮華經卷第七

圖 2. 妙法蓮華經卷 第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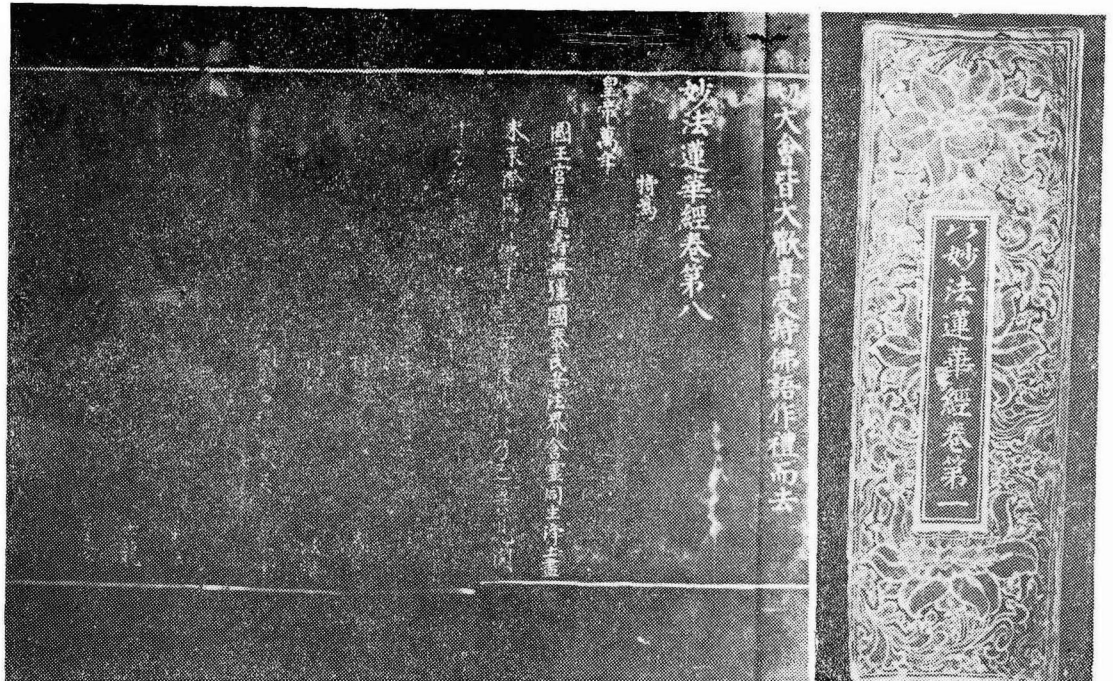


圖 3. 妙法蓮華經卷 第八

圖 1. 妙法蓮華經卷 第一

十方施主同起佛種同斯願海

時大歲壬申二月始六

日 誌

棟梁道人 玄哲

同願 法諧

同願中端司承吳季儒

鄭氏

士龍

達修

위의 奧書에서 보여 주듯이 寫經의 發願者는 中端司省(4) 吳季儒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吳季儒란 人物은 高麗史에 의하면 忠惠王二年條에  
「閏六月己亥 囚前發事吳季儒于行省

金彥丘坐殺人繫獄 季儒受玉帶矯旨釋之」

라는 記錄이 있어 그가 忠惠·忠肅王 때에 活躍했던 人物임을 짐작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寫經은 奧書의 「時大歲壬申」이라고 記錄된 바로 壬申에  
해당하는 一三三二-三三年인 忠肅王元년에 寫成된 作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高麗史」의 記錄과 이 寫經의 奧書의 연결로써  
吳季儒란 人物은 忠肅王元년에는 中端司承의 位에 있었으나 그 후 九年  
뒤인 忠惠王二年(一三三四年)에는 收賄혐으로 罪人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奧書의 構成으로 봐서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中端司省이었던  
吳季儒가 실질적인 寫經의 寫成에 필요한 財政的인 부담을 한 發願者이  
며 法諧는 吳季儒의 發願에 따라 이 寫經의 寫成을 주관한 주지가 아닌  
가 史料된다. 그리고 玄哲이 바로 寫經僧이었지 않았나 추측된다. 第二

卷의 第二紙의 裏面의 朱書의 玄哲이란 名記가 이 추측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奧書의 마지막 部分의 鄭氏·士龍·達修라는 名記는 吳季儒와 같이  
財政的인 원조를 한 發願者일 것이라는 解釋이 可能하나 同願이란 記錄  
이 따로 띄여져 있지 않다는 點과 高麗時代의 寫經中 女人을 記錄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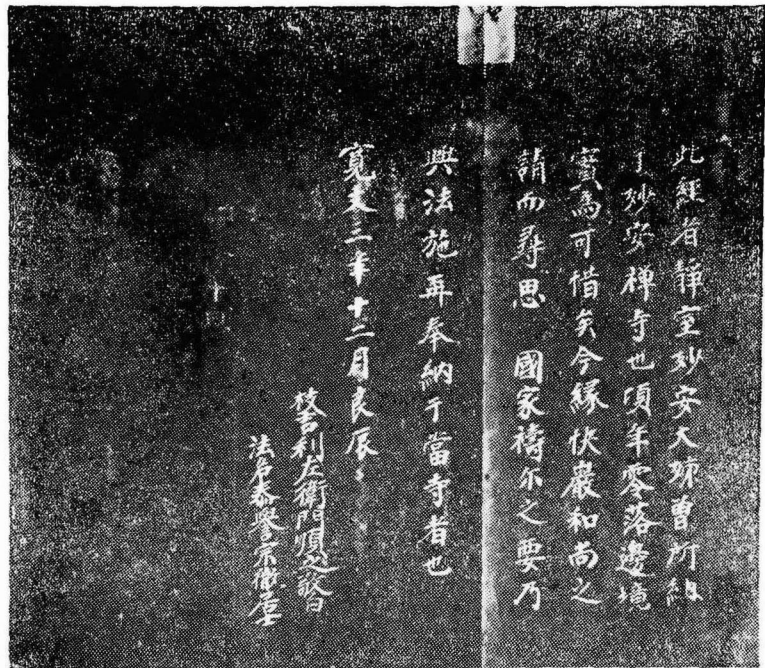


圖 4. 妙法蓮華經卷 第八 第一五紙 金泥書

있어 姓을 記錄한 경우가 많았고(5) 士龍과 達修에 따로 姓이 記錄되어 있지 않은 點 등으로 미루어 볼 때 鄭氏는 吳季儒의 妻이며 士龍達修는 그들의 子란 解釋도 可能다(6)。後者の 解釋에 따른다면 이 寫經은 결국 吳季儒가 그 自身과 一家의 福樂을 빌기위해 寫成한 作品이란 것을 充分히 짐작할 수가 있다。

또한 이 奧書가 쓰여진 第八卷의 第十五紙의 裏面에는 奧書와는 別筆의 金泥書로(圖4)

「此經者靜室妙安大姉曾所納  
干妙安禪寺也頃年零落邊境  
實爲可惜矣今緣快嚴和尚之  
請而尋思 國家禱尔之要乃

興法施再奉納于當寺者也  
寬文三年十二月良辰

技吉利左衛門順之敬白  
法名泰譽宗徹居士」

라고 쓰여져 있다.

이 裏書로서 이 寫經은 寬文三年(一六六三年)에 佐賀의 妙安寺에 施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단지 이 寫經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는 點은 日本에 現存하는 모든 寫經이 그러하듯이 이처럼 상세한 奧書와 裏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妙安寺에 施入되었는지 確實한 근거가 될 資料를 갖지 못하다는 點이다.

### 三、法華經의 種類와 그 中心思想

高麗의 寫經中 現在 가장 많이 傳해지고 있는 것이 法華經과 華嚴經

이다.

이와같이 法華經이 오늘날까지 많이 傳해지고 있는 것이 당시 法華經이 그 어느 經典보다 많이 寫成되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는 禱福佛敎의 性格을 強하게 띄고 있던 高麗의 全體의 인 佛敎影響이 컸었다고 본다(8)。

法華經中에서도 「妙法蓮華經」 七册本이 가장 많이 傳해지고 있으며 「妙法蓮華經」 八册本은 그 例가 그리 흔치 않다.

그러면 여기서는 「妙法蓮華經」 八册本과 關連해서 法華經의 種類와 그 中心思想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法華經을 그 種類別로 살펴보면

- ① 法華經三昧經六卷(吳代支彊梁接의 譯)
  - ② 正法華經八册本과 十册本(西晋代의 竺法護譯)
  - ③ 方等法華經五卷(東晋代의 支道汁譯)
  - ④ 妙法蓮華經七册本과 八册本(後秦代의 鳩摩什譯)
  - ⑤ 添品法華經七卷(隋代闍那崛多譯) 등이 있다.
- 이 이외에도 西晋矢譯의 「薩曇分陀利經一卷」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寶塔과 提婆達多의 二品이 다루어져 있고 唐의 玄奘譯인 「成就妙法華經王瑜伽觀智儀軌經一卷」이 있다.
- 그러나 現存하는 法華經으로는 「正法華經」과 「妙法蓮華經」「添品法華經」이 있다.

먼저 「正法華經」의 諸品을 살펴보면

- 光瑞品 ①
  - 善權品 ②
  - 應時品 ③
  - 信樂品 ④
  - 藥草品 ⑤
  - 授聲聞決品 ⑥
  - 往古品 ⑦
- 第一卷  
第二卷  
第三卷  
第四卷

授五百弟子決品 ⑧ 第五卷

授阿難云決品 ⑨

藥王如來品 ⑩

七寶塔品 ⑪ (妙法蓮華經의 提婆達多品은 이 七寶塔品속에 포함되어 있음)

勸說品 ⑫

安樂品 ⑬

菩薩從地涌出品 ⑭

如來現壽品 ⑮

御福事品 ⑯

勸助品 ⑰

難法師品 ⑱

常被輕慢品 ⑲

如來神足行品 ⑳

藥王菩薩品 ㉑

妙吼菩薩品 ㉒

光直普門品 ㉓

總持品 ㉔

淨持品 ㉕

淨復淨土品 ㉖

樂普賢品 ㉗

囑累品 ㉘

다음은 「妙法蓮華經」의 二八品과 七册本과 八册本の 諸品の 配치는 다음과 같다. 七册本 八册本

序品 ① 第一卷

方便品 ②

譬喻品 ③

信解品 ④

第二卷

① 第一卷

②

③

④

第二卷

藥草喻品 ⑤ 第三卷

授記品 ⑥

化城喻品 ⑦

五百弟子授記品 ⑧

授學無學人記品 ⑨

法師品 ⑩

見寶塔品 ⑪

提婆達多品 ⑫

勸持品 ⑬

安樂行品 ⑭

從地涌出品 ⑮

如來壽量品 ⑯

分別功德品 ⑰

隨喜功德品 ⑱

法師功德品 ⑲

常不輕菩薩品 ⑳

如來神力品 ㉑

囑累品 ㉒

藥王菩薩本事品 ㉓

妙音菩薩品 ㉔

觀世音菩薩普門品 ㉕

陀羅尼品 ㉖

妙莊嚴王本事品 ㉗

普賢菩薩勸發品 ㉘

第三卷

⑤

⑦

⑧

第四卷

⑩

⑪

第五卷

⑬

⑭

⑮

第六卷

⑰

⑱

⑲

第六卷

⑳

第七卷

㉓

㉔

㉕

第七卷

㉖

㉗

第八卷

㉘

「添品法華經」은 第十一品인 「見寶塔品」까지는 「妙法蓮華經」과 같으나 第十二品인 「提婆達多品」이 「見寶塔品」속에 포함되어 「妙法蓮華經」에 있어서 二八品이 二七品으로 줄었으며 第二二品인 「囑累品」이 맨 끝으로 돌려져 있다는點이 「妙法蓮華經」과 다르다.



圖 5. 妙法蓮華經卷 第一

法華經은 한마디로 말해서 生命의 「드라마」 혹은 生命의 本源力을 나타낸 經典이라 할 수 있다. 數없이 많은 譬喩와 事例로 生命의 宇宙를 살펴한 經典이라 할 수 있다.

「妙法蓮華經」의 二八品은 現代式으로 表現한다면 「生命에 關한 二八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生命內在의 英知를 顯現化하여 生命을 보다 莊嚴하게 만드는 本源의 힘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으며 宇宙의 「에베르기」를 담은 生命의 根源의 힘을 開發하는데에는 어떤 方法으로 이끌어 가야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解答書가 바로 法華經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華嚴經은 오히려 生命 그 자체가 얼마나 莊嚴한 것인가를 살펴한 것이며 般若心經은 生命을 具備한 知慧의 一面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9).



圖 6. 妙法蓮華經卷 第二

이와 같은意味에서 法華經의 中心思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三大思想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宇宙의 統一的眞理란 意味로서의 「一乘妙法思想」

② 久遠의 人格의 生命에 關한 「久遠本佛思想」

③ 現實의 人間的 活動을 실과한 「菩薩行道思想」이다.

먼저 「一乘妙法思想」은 眞理에의 세가지 말것이라고 表現되는 聲聞、緣覺、菩薩의 三乘이 一乘으로 統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開近顯遠」이라는 歷史的存在인 釋迦가 實은 永遠의 佛이란 것을 밝힌 思想이며(10)

둘째 「久遠本佛思想」은 壽量品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久遠佛은 宇宙의 眞理(法) 내지 實相을 깨달은 覺者로서 弟子、信徒앞에 應現한 佛陀이며, 바로 釋迦아말로 이 娑婆世界의 久遠佛이란 點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久遠佛이 眞情한 弟子가 되기 위해서는 娑婆世界 즉 現實의 人間界에서 苦難을 단속한 自然理法이 아니라 人生과 生活에 作用하는 永遠한 人格의 生命의 躍動體인 것을 밝힌 상이며(11)

셋째 「菩薩行道思想」은 現實에 있어서의 實踐活動中에서 永遠한 生命의 脈動을 느낀다는 思想이다. 壽量品에서 釋迦自身이 菩薩行을 실천했다고 실과한것이 바로 이점을 強調한 것이다(12).

#### 四、卷首畫

이 八册本の 「妙法蓮華經」(以下 八册本이라 稱한다)의 卷首畫는 金泥描로써 앞서도 言及한 바 있듯이 第一卷이 「釋迦如來 및 眷屬圖」 第八卷은 「開敷蓮華座 위에 앉은 觀音」이 그려져 있으며 나머지 六卷은 全部寶塔이 그려져 있어 卷首畫研究에 興味를 갖게 해 주는 作品이다.

이 八册本 卷首畫의 法量은 第一卷이 세로 四三・六「센치」、가로 一九・四「센치」이며 第二卷부터는 全部가 가로 三二・六「센치」 세로 一九・四「센치」이다.

#### 第一卷變相(圖⑤)

釋迦如來 및 그 眷屬圖가 그려져 있다.

中央에는 蓮華台座위에 앉은 釋迦와 그 弟子들이, 그 左右로 天王龍

王 天子 天部の 諸像이 그려져 있으며 釋迦의 上部에는 寶冠이 그려져 있고 寶冠 左右로는 雲形속에 諸佛들이 蓮華座위에 앉은 모습으로 各各 그려져 있다. 그 옆으로 象座위에 높이 앉은 普賢菩薩(右)과 獅子座위에 앉은 文殊菩薩(左)이 各各 左右하고 있으며 거기에 이어 菩薩像들이 그려져 있다.

이 圖像들의 量感있게 등근 얼굴모습은 高麗佛畫의 特徵를 잘 表現하고 있으나 全體의 인 描線은 高麗佛畫에서 보여주는 유연한 線描나 高麗末期의 變相에서 보여주는 섬세함은 보이지 않는다.

#### 第二卷變相(圖⑥)

多寶塔이 그려져 있다.

塔身의 第二段과 第三段에는 多寶、釋迦二佛이 並坐해 있어 이 圖像이야말로 法華經의 代表的인 思想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見寶塔品」의 내용을 그린 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多寶、釋迦兩佛의 얼굴모습과 蓮華座의 描線은 高麗佛畫樣式이 뚜렷하다. 또한 第七段과 第九段의 塔身한가운데는 卍字가 쪼여져 있다. 屋蓋의 隅棟에는 풍경이 달려있다.

#### 第三卷變相

九重寶塔이 그려져 있다.

#### 第四卷變相

九重寶塔이 그려져 있다.

#### 第五卷變相

十二重寶塔이 그려져 있다.

#### 第六卷變相

十五重寶塔이 그려져 있다.

#### 第七卷變相

九重寶塔이 그려져 있다.

#### 第八卷變相

開敷蓮華座 위에 앉은 觀音이 그려져 있다. 石手施無印 左手觸地印. 이 觀音의 등근 얼굴과 蓮華座는 高麗佛畫의 特色을 強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高麗佛畫에서 보여주는 극단적으로 纖細하고 유연한 텃치는 보이지 않는다.

이 八册本の 變相은 全體적으로 다른 高麗變相들에서 볼 수 있는 극단적인 纖細함보다는 活達한 描線의 特色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卷首畫란 文字 그대로 寫經이나 板經의 제일 앞머리에 그려지는 그림을 意味하지만 日本의 寫經의 경우는 經典과 前연 關連없는 「物語」의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註13)

그러나 우리의 卷首畫의 경우는 卷首畫가 바로 變相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14)

이 八册本の 경우, 八卷中 六卷에 寶塔이 그려져 있는데 이 寶塔을 變相으로 해석해도 좋은가 하는 것이 論議가 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러나 變相이란 經典의 內容이나 또 그 經典에 나타난 傳說이나 說話를 變으로 나타낸다는 點에서 法華經의 中心의 思想의 하나인 見寶塔品의 主된 內容인 寶塔을 그렸다는 것은 역시 극도로 略化된 變이란 點에서 變相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解析된다(15).

高麗의 寫經은 勿論 板經의 경우에도 寶塔만을 새긴 變相은 그리 흔치 않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八册本에서 寶塔만을 單獨像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法華經二八品中에서 寶塔思想이야말로 가장 中心의 思想이며 이 寶塔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生命이란 解析에 그 原因을 두고 있다고 본다.

「見寶塔品」十一에서는 「空中에 七寶로 裝飾된 寶塔에 多寶如來가 자리하고 있으며 釋迦는 地上으로부터 그 寶塔으로 자리를 옮겨 多寶釋迦가 並坐한다」고 실과하고 있으며

또 「如來壽量品」十五에서는 「無量十萬佛의 菩薩이 地上으로부터 출해서 虛空에서 分身來集한다」고 실과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寶塔思想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如來神力品」二二에서도 「佛의 神力에 의해 一切衆生은 釋迦、多寶二佛이 많은 菩薩과 大眾에 둘러싸여 있는 寶塔의 師座에 並坐해서

있는 것을 보고 歡喜에 차 있다」는 內容이 실과되고 있다.

多寶佛은 釋迦의 過去佛이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釋迦의 모습 또한 過去佛이며 이 分身佛들은 來集하여 釋迦에 歸一하고 諸世界는 一土로서 통한다는 것이 바로 이 寶塔思想인데 이와 같은 寶塔思想은 末世에 있어서의 娑婆世界를 中心으로 한 現實實踐을 제창한 것이며 七寶의 塔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生命을 意味했다고 할 수 있는 點이다.

이 八册本에서 寶塔이 強調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思想과 깊은 關連을 맺고 있다고 본다.

### 五、書體

이 寫經의 書體는 高麗時代에 크게 盛行했던 歐陽詢體이다.

以上과 같은 考察을 通하여 「妙法蓮華經」 八册本은 ① 法華經變相에 새로운 解釋을 可能케 했으며 ② 八册本 「妙法蓮華經」으로서 缺本없이 年代 正確한 裝飾經이란 點에서 寫經研究에 있어서 年代基準의 좋은 例가 되었고 ③ 高麗時代의 銘記樣式에 關한 重要한 資料로서 價値있는 作品이라 본다.

### 註

① 日本의 毎日新聞發行 「藝教藝術」一三號에 筆者의 拙稿 「至元六年銘紺紙金字法華經について」參照.

② 同上

③ 종이의 이름마디에 第一紙 第二紙 등 朱書로 記錄되어 있는데 이는 高麗紙 特別 寫經紙研究에 있어서 그 길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④ 高麗史第九列傳卷二十二 李穀의 條에 의하면 「忠惠王二年 奉表如元 因留居 凡六年 元授中司典簿 記錄이 있으며 同卷列傳二十八 李穡의 條 「李穡、字穎叔、贊成事穀之子、生而聰慧、異常、讀書誦誦、年十四、中成均試、已有聲、穀仕元、爲中瑞司典簿、稽以朝官子、補國子監生員三年 穀在本國、卒、自元奔喪」라고 記錄되어 있다. 즉 李穀이 六年間 元에 있을 동안 元으로 부터 「中瑞司典簿」란 官職을 수여 받았다는 內容으로 미루어 볼 때 中瑞司典簿는 元의 官職임을 알 수 있으며 이로 미루어 吳季儒란 人物은 親元세력의 한 사람으로서 裝飾經을 寫成할만한 實力의 人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至正十年(一三五〇年)에 寫成된 麻紙銀泥의 「首楞嚴經」(慶北大學校博物館

所藏)의 奧書中「李邦翰爲亡母李氏書」란 記錄이 있으며 또한 같은 至正十年의 作品으로서 紺紙金泥의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前麻谷寺所藏)의 奧書中에도 「施主延安郡夫人李氏玆行敬受

亡母 金頌 秦氏

亡父 宰臣 李思溫이란 記錄이 있을 뿐만 아니라 日本의 京都 寶寺가 所藏하고 있는 至元三十一年(一二九四年)의 「妙法蓮華經十冊本의 奧書에도

「前略 功德主中正太宗簿令致仕 安節 安州郡夫人 李氏

同願 昌寧郡夫人 張氏

단 위의 記錄들은 「××夫人」이라든가 亡母라고 되어있어 女性이란 것을 充分히 알 수 있지만 이 八冊本의 「妙法蓮華經」의 奧書는 이 點에서 명료하지 못하다.

⑥ 慶北大學校師範大學歷史科의 許興植教授의 解釋

⑦ 佐賀縣立博物館에는 이 八冊本의 「妙法蓮華經」 이외에도 같은 鍋島家の 寄託品인 十冊本의 「妙法蓮華經」이 있는데 이 十冊本의 奧書에도 八冊本의 그것과 같은 別筆의 施入銘이 있는데

「此經者淨室妙安大姉曾所納于 龍泰禪寺也頃年零落邊境寬

爲可惜矣今緣活杉和尚之請而 尋思 國家禱尔之要乃興法施

再奉納于平安山者也 寬文三年十二月良辰

枝吉利左衛門順之敬白 法名泰譽宗徹居士

라고 記錄되어 있어 같은 寬文三年에 八冊本은 快嚴和尚의 請으로 妙安寺에 七冊本은 活杉和尚에 의해 龍泰寺에 施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佐賀의 領主였던 鍋島家に 소속되게 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施入銘 글의 내용도 筆致도 八冊本이 七冊本의 같아 龍泰寺와 妙安寺가 같은 사찰의 別名이 아닌가 라고 일단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⑧ 法華經의 諸品들이 功德이란 點과 깊은 關連을 맺고 있지만 특히 第二十五品인 「觀世音菩薩普門品」에서는 七難救濟가 強調되고 있어 功德과 깊은 關連을 맺고 있다(妙法蓮華經參照).

⑨ 經典의 成立史의 見地에서 考察할 때 「空」思想이 그 原理가 되었다는 點에서 「般若心經」이나 「華嚴經」이나 「法華經」이나 마찬가지로 「般若心經」은 空으로 原理를 解明한 經典이란 點에서 生命이 具備한 知慧의 書라 할 수 있으며 空을 보다 積極的으로 表現하고자 시도했다는 點에서 華嚴經은 生命의 莊嚴性을 나타낸 書라 할 수 있다(田村芳朗著의 「法華經의 成立過程」參照)

⑩ 原島 嵩著 「法華經」、中川日史著 「法華經의 常識」、田村芳朗著 「法華經」參照

⑪ 同上

⑫ 同上

⑬ 平安時代「長寬二年一一六四年」의 裝飾經「妙法蓮華經藥草喻品第五」(久能寺所藏)의 見返繪(卷首畫)가 源氏物語繪卷의 內容이 그려져 있으며 또 12C 初의 遺品이라고 傳해지고 있는 「法華經冊子」(上野氏)의 下繪 역시 見返繪에 經典의 內容과는 關係없는 물어가 그려져 있고 世紀末의 遺品인 東京博物館所藏의 扇面「法華經冊子」에도 見返繪로서 「物語」가 그려져 있다.

⑭ 高麗 및 李朝의 모든 寫經과 板經의 卷首畫란 經典과 關連된 內容의 것이며, 日本의 경우처럼 俗畫가 그려진 事例는 없다.

⑮ 寶塔의 경우 이외에도 單獨像이 그려진 경우가 있는데 黃壽永博士所藏의 「不空羼索真言經」 또한 東國大學博物館 所藏의 「大方廣佛華嚴經四一」의 卷首畫와 日本京都市小川廣己家の 「文殊師利問答提經」의 卷首畫로서 金剛力士가 그려져 있다. 이 경우 金剛力士는 佛敎의 守護神이란 點에서 佛敎經典과 關係를 맺고 있으며 또한 그 經典을 寫成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을 守護한다는 意味에서 역시 變相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⑯ 寫經中에는 寶塔만을 그린 例가 없으며 板經의 경우 海印寺所藏의 板經中一段의 屋蓋를 蓮華로 나타낸 三層塔이 새겨진 것이 단 한 점 있다.

(\*) 이 原稿를 쓸 수 있도록 資料제공에 편의를 도와준 日本九州大學 美學研究室의 平田 寬助敎授와 佐賀博物館 鍋島家に感謝하며 九州大學 留學時節부터 寫經研究에 여러가지 지도를 주신 黃壽永先生님께 아울러 감사드린다.

(慶北大學校博物館、講師)